
전광훈 목사에게 자금했다는, 극우간부 김문수 후보

대체 김문수 후보와 전광훈 목사의 저질 브로맨스의 끝은 어디입니까.

김 후보가 전 목사의 자금줄을 자처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. 2019년 김 후보는 “고영주, 이인호 전 러시아 대사, 권영해 국방부 장관 등 300여 명이 모인 송년 모임에 다녀왔다”면서 극우집회 자금과 관련된 발언을 합니다.

당시 김 후보는 극우집회에 참석해 “만장일치로 우리는 모두 전광훈을 밀 수밖에 없다, 돈 있는 것은 전부 모아 전광훈 목사 다 드리자 결정했다”라고 선동했습니다.

이어 “매 주마다 무대 이승만 광장에 설치하고 이 모든 비용을 어디서 대겠느냐”며 “우리가 있는 거 다 몰아서 드리자 결정을 했습니다”라고 구체적 용처까지 덧붙였습니다. 100여명의 변호사들이 “돈 있는 거는 다 긁어다가 전광훈 목사님 현금통에 다 집어넣자 결의했다”고도 밝혔습니다.

김 후보가 전 목사의 극우집회 자금 마련을 위해 물밑에서 노력했음을 자백한 것입니다.

그렇게 모인 자금으로 전 목사는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. 당장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강행된 광화문 집회는 온 국민의 눈총을 받았습니다. 광화문에 온 사람들에게 “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”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전파했고, 결국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.

전 목사는 김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“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라”는 기도를 받았으며 김 후보를 찾아갔던 인물입니다. 전 목사에 따르면 김 후보는 야인이 된 후 사랑제일교회를 먼저 찾아가 전 목사를 만났습니다.

결국 김 후보는 정치적으로 쇠락한 시점에서 자신을 대통령 만들겠다는 극우 목사를 찾았고,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함께 일한 셈입니다.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정당도 만들기도 한, 참 나쁜 극우 간부입니다.

끝 모를 극우 연대로 인해 국민적 피로감이 너무도 큼니다. 진짜 대한민국은 세상을 나쁘게 물들이는 극우 연대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.

2025년 5월 29일
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·박관천